

#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1. 8. 15 | 통권 제3호(2011-03) |

##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 요약 ]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됨.
- 2011년 상반기 동안 고용은 주로 상용직 중심의 제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확대됨.
-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련 산업에서의 고용부진은 여전히 지속됨.
-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의 극심한 고용부진은 학령인구의 감소, 최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사교육 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1년 하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0만 4천 명 내외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3%, 고용률은 59.2%, 실업자수는 87만 명 내외, 실업률은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2011년 연간 취업자수 35만 8천 명 내외 증가).
- 이러한 추세라면 2011년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1.5%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고용개선 지속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됨.
  - 2011년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41만 2천 명 증가됨.
  - 카드 사태에서 빠져나와 고용회복이 이루어지던 2004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대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음.
-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58.7%임.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연속 하락.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한 15,976명임.

### 25~29세, 40대, 50대 고용률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2011년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함.
  - 20대와 30대 취업자수는 순감소함.
  - 다만,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 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중에 있어 취업자수 증감으로는 취업시장 상태를 알기 어려우므로 연령별 고용률을 보아야 함.
- 고용률을 보면, 2011년 상반기 청년층(30세 미만) 고용부진은 20~24세의 고용률 부진에 따른 것임.
  - 20~24세 고용률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8%p 하락함.
  - 반면 25~29세는 전년동기대비 0.7%p

〈GDP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상승한 69.0%를 기록해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각년도 상반기 중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2005년 상반기 수준까지 증가한 수치임.
- 25~29세 고용률을 학력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남성은 전문대졸, 여성은 대졸 이상에서 고용률 개선이 컸음.
  - 30대도 2010년 상반기 대비 취업자수는 줄었지만, 고용률은 0.4%p 상승하였으며, 40대도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78.2%p의 고용률을 기록함.
  - 50대의 경우 71.1%의 고용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각년도 상반기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상용직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함.
    -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취업자수는 61만 3천 명 증가함.
    - 상용직을 제외하면 임시·일용·고용주·자영업자 모두 전년동기대비 순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만 2만 명 증가함.
    - 상용직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남성에서 26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에서 34만 8천 명 증가해 여성 상용직 증가규모가 더 컸음.
    -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취업자수가 증가했으며, 5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임시·일용직이 동반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임시·일용직이 순감소함.
  -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1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17만 명이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호조로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2010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1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중 17.2%를 차지함.
  - 제조업 고용은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직 근로자 주도의 고용창출이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20만 5천 명 증가함.
    - 특히 제조업 상용직 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제조업 생산현장에서의 고용계약 행태가 최근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2011년 상반기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7만 9천 명 증가함.
    - 최근 전반적인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련 산업에서의 고용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취업자의 부문별·산업별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145	-72	323	191	-140	283	412
고용 증감	부문	민간	101	-263	395	134	-229	266	430
		공공	43	191	-71	57	88	16	-17
	산업	제조업	-52	-126	191	-26	-157	117	170
		서비스업	260	179	200	297	96	318	279
		건설업	-37	-91	33	-34	-78	-9	-22
고용 비중	부문	민간	96.4	95.6	96.0	96.4	96.0	96.0	96.1
		공공	3.6	4.4	4.0	3.6	4.0	4.0	3.9
	산업	제조업	16.8	16.3	16.9	17.1	16.5	16.8	17.2
		서비스업	67.9	68.8	68.8	67.8	68.6	69.2	69.1
		도소매업	(22.7)	(22.2)	(21.9)	(22.9)	(22.5)	(22.0)	(21.8)
		숙박 및 음식점업	(12.8)	(12.0)	(11.5)	(12.8)	(12.2)	(11.6)	(1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	(5.2)	(5.4)	(4.6)	(5.1)	(5.3)	(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5.8)	(6.2)	(6.0)	(5.8)	(6.0)	(6.5)
		공공행정 및 국방	(5.2)	(6.4)	(5.9)	(5.3)	(5.8)	(5.8)	(5.6)
		교육서비스업	(11.1)	(11.3)	(11.0)	(11.1)	(11.3)	(11.2)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3)	(6.2)	(7.0)	(5.1)	(6.0)	(6.7)	(7.8)
		건설업	7.7	7.3	7.4	7.7	7.5	7.3	7.1

주 : 공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을 의미하며, 이외의 산업은 모두 민간으로 간주함.  
( )안은 서비스업 내 산업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특히 2010년 6월 이후 계속된 교육서비스업에서의 고용부진은 학령인구의 감소, 최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사교육 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1년 상반기 동안에만 교육서비스업에서 15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짐.
- 2011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1만 2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5만 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창출되었음.
-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고용증감 및 연령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300인 미만	고용증감	208	130	548	264	26	532	408	
	고용 비중	20세 미만	1.2	1.1	1.2	1.6	1.4	1.3	1.3
		20대	22.0	21.3	20.3	25.9	24.3	23.3	22.3
		30대	28.6	27.8	27.3	29.7	29.6	28.7	28.7
		40대	26.1	26.4	26.4	24.5	25.1	25.6	25.8
		50대	15.2	15.9	17.0	12.3	13.2	14.0	15.0
		60세 이상	7.0	7.5	7.8	6.1	6.4	7.0	6.9
300인 이상	고용증감	29	118	-31	36	98	-35	62	
	고용 비중	20세 미만	0.4	0.3	0.3	0.7	0.4	0.5	0.4
		20대	23.2	20.7	20.1	25.0	23.9	23.6	23.1
		30대	36.0	36.2	35.0	34.5	35.4	35.8	36.5
		40대	26.8	27.7	29.2	27.5	27.8	27.8	26.7
		50대	12.0	12.9	13.5	11.3	11.4	11.1	11.8
		60세 이상	1.6	2.1	1.9	1.1	1.2	1.2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면,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감소함.

- 2011년 상반기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제조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0년 말에 이르러서야 증가세로 전환됨.

- 2011년 상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는 우선 20대 연령층에 대한 고용이 사업체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 중소기업에서의 20대 연령층 고용은 2011년 상반기 동안 1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대기업에서의 20대 연령층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함.

〈20대 연령층의 사업체규모별 신규채용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300인 미만(고용증감)		-104	-92	-52	-86	-110	-26	-120
근속	1년 미만	45.2	46.4	47.2	45.5	45.6	46.6	44.9
	1~2년 미만	18.9	18.2	18.0	18.3	18.0	19.1	19.3
	2년 이상	35.8	35.4	34.8	36.2	36.4	34.4	35.8
300인 이상(고용증감)		6	-23	-18	1	-14	-33	29
근속	1년 미만	30.9	33.2	34.1	34.5	32.8	29.3	31.1
	1~2년 미만	19.7	20.7	19.5	19.5	23.5	20.7	19.0
	2년 이상	49.3	46.1	46.5	46.0	43.7	50.0	49.9

주: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20대 연령층의 고용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현시점에서 그나마 대기업에서의 20대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나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20대 연령층의 고용비중은 여전히 줄고 있음.

■ 또한 2011년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 규모가 사업체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음.

- 중소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은 2011년 상반기 동안 15만 2천 명 감소한 반면, 대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은 5만 4천 명 증가함.

- 특히 20대 연령층에 대한 신규채용을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개 감소한 반면, 대기업에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

기대비 2만 9천 명 증가함.

■ 2011년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성장률을 넘어서지만 당초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은 4.7~5.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의 악화로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30만 4천 명 내외, 연간 35만 8천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기저효과의 작

### 〈2011년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한국은행의 연간 4.3% 성장률 기준)			2011 (기획재정부의 연간 4.5% 성장률 기준)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p	8.0	4.5	6.2	3.8	4.7	4.3	3.8	5.0	4.5
생산가능인구	40,477	40,704	40,590	40,938	41,159	41,049	40,938	41,159	41,049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26	25,094	24,963	25,228	25,095
경제활동참가율	60.8	61.2	61.0	61.0	61.3	61.1	61.0	61.3	61.1
취업자	23,604	24,055	23,829	24,016	24,357	24,186	24,016	24,358	24,187
(증가율)	1.2	1.5	1.4	1.7	1.3	1.5	1.7	1.3	1.5
(증감수)	283	364	323	412	303	357	412	304	358
실업자	999	841	920	947	869	908	947	870	908
실업률	4.1	3.4	3.7	3.8	3.4	3.6	3.8	3.4	3.6
고용률	58.3	59.1	58.7	58.7	59.2	58.9	58.7	59.2	58.9
비경제활동인구	15,874	15,976	15,841	15,976	15,933	15,954	15,976	15,932	15,954

주: p는 전망치임.

201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 〈최근 고용탄력성 추이〉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연간	상반기
2006	5.2	1.3	0.249(0.329)	0.241(0.353)
2007	5.1	1.2	0.239(0.315)	0.246(0.337)
2008	2.3	0.6	0.267(0.312)	0.167(0.315)
2009	0.3	-0.3	-0.943(0.301)	0.193(0.328)
2010	6.2	1.4	0.223(0.263)	0.153(0.295)
2011	4.3(한국은행)	1.5	0.348(0.295)	0.459(0.309)
	4.5(기획재정부)	1.5	0.334(0.294)	

주: ( )안은 2000년 기준 기간평균 고용탄력성임.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용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하반기 취업자수는 1.3%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0만 4천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3%, 고용률은 59.2%, 실업자수는 87만 명 내외, 실업률은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 4.3%(한국은행) 기준에서는 취업자가 35만 8천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각각 61.1%, 58.9%로 전망되어 2010년에 비해 고용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라면 2011년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1.5%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상용직의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의 지속적인 고용부진은 하반기에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자영자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감소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seongjm@kli.re.kr / Tel. 02-3775-558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http://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http://www.kli.re.kr)